

발간보고서

#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 조사

2026년 2월



**KBIZ** 중소기업중앙회

# Contents

---

## CHAPTER 01. 조사개요

---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3
1. 조사배경	3
2. 조사목적	3
제2절 조사개요	3
1. 조사개요	4
2. 조사항목	4
제3절 응답기업 현황	5

---

## CHAPTER 02. 의견조사 결과

---

제1절 공통 의견조사 결과	8
1. 수도권 기업의 지방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	8
2. 비수도권 기업의 수도권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	10
제2절 수도권 의견조사 결과	14
1. 사업장(전체 혹은 일부) 지방 이전 및 계획	14
제3절 비수도권 의견조사 결과	16
1. 지역 소멸위험 직면	16
2. 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	20
3.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28

---

## CHAPTER 03. 부록

---

조사표	32
-----	----



# CHAPTER 01.

## 조사개요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제2절 조사개요

제3절 응답기업 현황



## 제1절 조사배경 및 목적

### 1. 조사배경

- 지방 중소기업은 인력 확보의 어려움, 시장 규모 축소, 성장 동력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제약되고 있으며, 이는 기업 운영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
- 지원정책이 지방 중소기업의 실제 경영 환경과 수요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한계와 개선 필요 사항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 2. 조사목적

- (현장 실태 파악)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체감도 및 개선필요사항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기초자료 확보) 본 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실제 수요 간의 간극을 확인하고, 향후 중소기업 지원정책 수립 및 개선 과정에서 활용 가능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제2절 조사개요

### 1. 조사개요

<표 1-1> 조사개요

구분	주요내용
조사대상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의 제조업, 5인 이상의 비제조업 중소기업
조사기간	2026년 1월 30일 ~ 2026년 2월 5일
유효표본	772개사 (수도권: 203개사, 비수도권: 569개사)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전화조사
표본추출방법	지역·업종을 고려한 층화추출법
조사기관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 2. 조사항목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문항을 구분하여 설계하였고,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해 진행함
- 수도권 조사의 주요 내용은 '비수도권과 격차 체감도 및 지방이전 의향도'이고, 비수도권의 주요 내용은 '지역소멸 가능성·수도권과 격차·지원정책 체감도'임

<표 1-2> 조사항목

구분	주요내용
수도권	- 업종, 종업원수, 매출액 - 지방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 비교 정도 - 지방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크게 체감하는 분야 - 사업장(전체 혹은 일부) 지방 이전 여부 및 계획 유무 - 이전했거나 계획이 있는 연도 - 이전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 이전 대상 지역 - 이전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 이전 결정에 영향을 미친 정책 - 이전했거나 계획이 있는 경우 정책적으로 아쉬운 점 혹은 보완 필요사항 - 이전하지 않았거나 계획이 없는 경우 이전하지 않거나 계획이 없는 이유
비수도권	- 업종, 종업원수, 매출액 - 소멸위험에 직면했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 - 소멸위험에 직면했다는 경우 소멸위험의 원인 - 수도권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 비교 정도 - 수도권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크게 체감하는 분야 - 지방 중소기업 중앙정부 지원정책 체감 수준 인식 정도 - 지방 중소기업 지방정부 지원정책 체감 수준 인식 정도 - 중앙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 - 지방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 -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 관련 건의 의견

## 제3절 응답기업 현황

- 총 772개사가 본 조사에 참여함
- 수도권 203개사. 비수도권 569개사로 구성됨

&lt;표 1-3&gt; 수도권 응답기업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203	100.0	
업종	제조업	129	63.5
	비제조업	74	36.5
종사자	30인이하	146	71.9
	30인초과	57	28.1
매출액	30억이하	70	34.5
	30억초과100억이하	72	35.5
	100억초과	61	30.0

&lt;표 1-4&gt; 비수도권 응답기업 현황 (단위: 개사, %)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569	100.0	
권역	충부권	118	20.7
	대경권	99	17.4
	호남권	101	17.8
	동남권	104	18.3
	강원	49	8.6
	전북	48	8.4
	제주	50	8.8
업종	제조업	356	62.6
	비제조업	213	37.4
종사자	30인이하	401	70.5
	30인초과	168	29.5
매출액	30억이하	220	38.7
	30억초과100억이하	203	35.7
	100억초과	146	25.7

## CHAPTER 02.

## 의견조사 결과

제1절 공동 의견조사 결과

제2절 수도권 의견조사 결과

제3절 비수도권 의견조사 결과

## 제1절 공통 의견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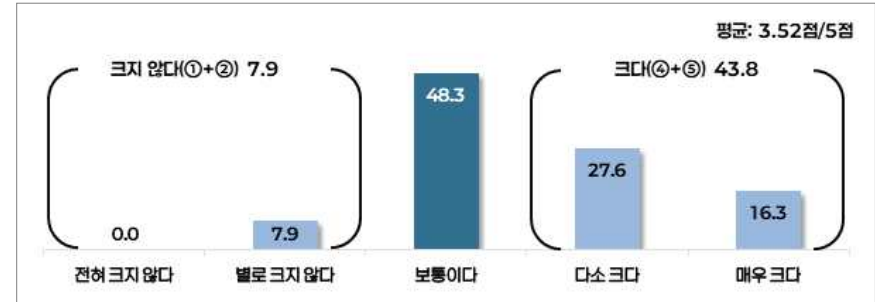
### 1. 수도권 기업의 지방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

#### 1) 지방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 비교 정도<sup>1)</sup>

- 전체 응답기업의 지방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 비교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3.52점으로 '보통(③)'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보통(③)' 수준이 48.3%로 가장 높았고, '크다(④+⑤)'가 43.8%로 나타나 수도권 중소기업은 지방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어느 정도 체감하는 것으로 확인됨
- (업종) 업종별로 살펴보면, 비제조업에서 '크다(④+⑤)'가 51.4%로 제조업(39.5%) 대비 높았고, 평균도 비제조업(3.72점)이 제조업(3.41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 지방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 비교 정도

(단위: %, 점/5점)



<표 2-1> 지방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 비교 정도

(단위: 개사, %, 점/5점)

구분	사례수	전혀 크지 않다	별로 크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크다	매우 크다	종합			5점 평균	
							크지 않다(①+②)	보통(③)	크다(④+⑤)		
전체	203	0.0	7.9	48.3	27.6	16.3	7.9	48.3	43.8	3.52	
업종	제조업	129	0.0	10.1	50.4	27.9	11.6	10.1	50.4	39.5	3.41
	비제조업	74	0.0	4.1	44.6	27.0	24.3	4.1	44.6	51.4	3.72

1) 수도권과 지방 간 중소기업 경영환경 격차에 대한 조사표 척도는 '① 매우 크다' ~ '⑤ 전혀 크지 않다'로 구성됨. 분석 시 '① 전혀 크지 않다' ~ '⑤ 매우 크다'로 역코딩 하였음

2) 지방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크게 체감하는 분야

○ 수도권과 지방 간 중소기업 경영환경 격차에 대해 '크다'고 응답한 기업의 지방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크게 체감하는 분야(1+2순위)를 살펴보면, '인력 확보'가 6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67.4%), '판로 기회'(22.5%), '투자·금융 접근성'(20.2%), '기술 접근성'(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력 문제와 인프라 여건이 지방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체감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업종) 제조업에서 '인력 확보'가 74.5%로 비제조업(63.2%) 대비 높았음. 비제조업은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가 73.7%로 제조업(62.7%)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2] 지방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크게 체감하는 분야(1+2순위) (단위: %, 복수응답)



<표 2-2> 지방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크게 체감하는 분야(1+2순위) (단위: 개사, %, 복수응답)

구분	빈도	인력 확보	투자·금융 접근성	기술 접근성	판로 기회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	기타	
전체	89	69.7	20.2	5.6	22.5	67.4	0.0	
업종	제조업	51	74.5	17.6	5.9	19.6	62.7	0.0
	비제조업	38	63.2	23.7	5.3	26.3	73.7	0.0

\* 수도권과 지방 간 중소기업 경영환경 격차에 대해 '크다(㉔+㉕)'고 응답한 기업에 의한 결과임

\*\* 항목별 1순위와 2순위로 선택한 응답의 합계 비율

2. 비수도권 기업의 수도권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

1) 수도권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 비교 정도<sup>2)</sup>

○ 전체 응답기업의 수도권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 비교 정도를 살펴보면, 평균점수는 3.81점으로 '보통(㉓)' 수준 이상의 격차를 체감하고 있음

- '크다(㉔+㉕)'가 63.4%로 가장 높게 나타나, 10개사 중 6개사가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수도권 대비 경영환경 격차를 체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 권역이 '보통(㉓)' 수준을 상회했고, 강원(4.14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대경권(3.99점), 전북(3.88점), 제주(3.80점), 중부권(3.71점), 동남권(3.69점), 호남권(3.67점) 순으로 나타남

[그림 1-3] 수도권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 비교 정도 (단위: 점/5점)



<표 2-3> 수도권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 비교 정도 (단위: 개사, %, 점/5점)

구분	사례수	전혀 크지 않다	별로 크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크다	매우 크다	종합			5점 평균	
							크지 않다 (㉑+㉒)	보통 (㉓)	크다 (㉔+㉕)		
전체	569	1.6	4.4	30.6	38.5	25.0	6.0	30.6	63.4	3.81	
전국기업	소계	118	2.5	4.2	32.2	41.5	19.5	6.8	32.2	61.0	3.71
	업종	제조업	73	1.4	4.1	31.5	42.5	20.5	5.5	31.5	63.0
	비제조업	45	4.4	4.4	33.3	40.0	17.8	8.9	33.3	57.8	3.62
대도시기업	소계	99	2.0	1.0	26.3	37.4	33.3	3.0	26.3	70.7	3.99
	업종	제조업	61	3.3	1.6	23.0	37.7	34.4	4.9	23.0	72.1
	비제조업	38	0.0	0.0	31.6	36.8	31.6	0.0	31.6	68.4	4.00

\*계속

2) 수도권과 지방 간 중소기업 경영환경 격차에 대한 조사표 척도는 '㉑ 매우 크다' ~ '㉕ 전혀 크지 않다'로 구성됨. 분석 시 '㉑ 전혀 크지 않다' ~ '㉕ 매우 크다'로 역코딩 하였음

구분	사례수	전혀 크지 않다	별로 크지 않다	보통이다	다소 크다	매우 크다	종합			5점 평균	
							크지 않다 (①+②)	보통 (③)	크다 (④+⑤)		
전체	569	1.6	4.4	30.6	38.5	25.0	6.0	30.6	63.4	3.81	
소계	101	1.0	5.0	32.7	48.5	12.9	5.9	32.7	61.4	3.67	
제조업	제조업	62	1.6	4.8	30.6	48.4	14.5	6.5	30.6	62.9	3.69
	비제조업	39	0.0	5.1	35.9	48.7	10.3	5.1	35.9	59.0	3.64
소계	104	1.0	10.6	31.7	31.7	25.0	11.5	31.7	56.7	3.69	
제조업	제조업	71	1.4	12.7	33.8	29.6	14.1	33.8	52.1	3.59	
	비제조업	33	0.0	6.1	27.3	36.4	30.3	6.1	27.3	66.7	3.91
소계	49	2.0	2.0	16.3	38.8	40.8	4.1	16.3	79.6	4.14	
제조업	제조업	29	0.0	3.4	20.7	37.9	3.4	20.7	75.9	4.10	
	비제조업	20	5.0	0.0	10.0	40.0	45.0	5.0	10.0	85.0	4.20
소계	48	0.0	4.2	33.3	33.3	29.2	4.2	33.3	62.5	3.88	
제조업	제조업	29	0.0	3.4	31.0	34.5	3.4	31.0	65.5	3.93	
	비제조업	19	0.0	5.3	36.8	31.6	26.3	5.3	36.8	57.9	3.79
소계	50	2.0	0.0	40.0	32.0	26.0	2.0	40.0	58.0	3.80	
제조업	제조업	31	3.2	0.0	35.5	35.5	25.8	3.2	35.5	61.3	3.81
	비제조업	19	0.0	0.0	47.4	26.3	26.3	0.0	47.4	52.6	3.79

2) 수도권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크게 체감하는 분야

○ 수도권과 지방 간 중소기업 경영환경 격차에 대해 '크다'고 응답한 기업의 수도권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크게 체감하는 분야(1+2순위)를 살펴보면, '인력 확보'가 6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51.2%), '투자·금융 접근성'(30.2%), '판로 기회'(17.5%), '기술 접근성'(13.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력 확보'와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가 각각 66.2%, 51.2%로 과반을 차지해 인력 문제와 인프라 여건이 수도권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체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권역별)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인력 확보'가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북(80.0%)과 제주(65.5%)는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남권과 전북에서 '인력 확보'가 각각 79.7%, 73.3%로 전체(66.2%) 대비 높아 권역 중 가장 크게 체감하는 것으로 확인됨. 대경권은 '기술 접근성'이 24.3%로 전체(13.3%) 대비 높아 기술 분야 격차에 대한 인식이 두드러지고, 중부권은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가 36.1%로 전체(51.2%)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 수도권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크게 체감하는 분야(1+2순위) (단위: %, 복수선택)



<표 2-4> 수도권 중소기업과의 경영환경 격차를 크게 체감하는 분야(1+2순위) (단위: 개사, %, 복수응답)

구분	빈도	인력 확보	투자·금융 접근성	기술 접근성	판로 기회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	
전체	361	66.2	30.2	13.3	17.5	51.2	
소계	72	68.1	34.7	11.1	12.5	36.1	
제조업	제조업	46	67.4	30.4	8.7	13.0	39.1
	비제조업	26	69.2	42.3	15.4	11.5	30.8
소계	70	61.4	35.7	24.3	17.1	58.6	
비제조업	제조업	44	56.8	34.1	22.7	20.5	61.4
	비제조업	26	69.2	38.5	26.9	11.5	53.8

\*계속

구분	빈도	인력확보	투자·금융 접근성	기술 접근성	판로 기회	교통·물류·임지 등 인프라	
전체	361	66.2	30.2	13.3	17.5	51.2	
소계	62	61.3	40.3	12.9	21.0	51.6	
제조업	제조업	39	71.8	35.9	5.1	23.1	48.7
	비제조업	23	43.5	47.8	26.1	17.4	56.5
소계	59	79.7	37.3	16.9	13.6	47.5	
서비스업	제조업	37	89.2	37.8	10.8	10.8	45.9
	비제조업	22	63.6	36.4	27.3	18.2	50.0
소계	39	64.1	12.8	0.0	23.1	38.5	
제조업	제조업	22	68.2	13.6	0.0	18.2	36.4
	비제조업	17	58.8	11.8	0.0	29.4	41.2
소계	30	73.3	13.3	13.3	16.7	80.0	
제조업	제조업	19	78.9	10.5	15.8	21.1	68.4
	비제조업	11	63.6	18.2	9.1	9.1	100.0
소계	29	51.7	10.3	3.4	24.1	65.5	
제조업	제조업	19	47.4	5.3	0.0	15.8	73.7
	비제조업	10	60.0	20.0	10.0	40.0	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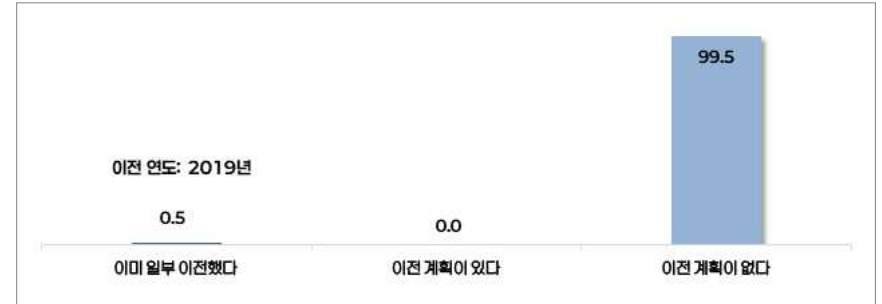
\* 수도권과 지방 간 중소기업 경영환경 격차에 대해 '크다'고 응답한 기업에 의한 결과임2. 사업장(전체 혹은 일부) 지방 이전 및 계획

## 제2절 수도권 의견조사 결과

### 1. 사업장(전체 혹은 일부) 지방 이전 및 계획 여부(연도)

○ 전체 응답기업의 사업장 지방 이전 여부 및 계획 유무를 살펴보면, '이전 계획이 없다'가 99.5%로 대다수를 차지함

[그림 1-5] 사업장(전체 혹은 일부) 지방 이전 및 계획 여부(연도) (단위: %, 년)



<표 2-5> 사업장(전체 혹은 일부) 지방 이전 및 계획 여부(이전시점) (단위: 개사, %, 년)

구분	사선수	이미 일부 이전했다	이전 계획이 있다	이전 계획이 없다	
전체	203	0.5	0.0	99.5	
업종	제조업	129	0.0	0.0	100.0
	비제조업	74	1.4	0.0	98.6

\* 지방 이전 또는 이전 계획의 긍정 응답은 1개사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이전 의향은 극히 제한적으로 확인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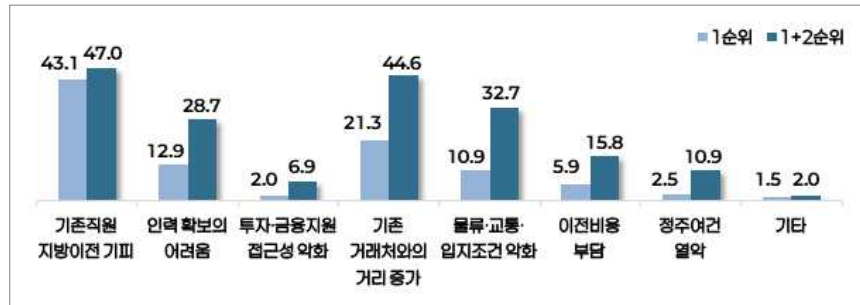
## 2) 지방 이전을 계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 지방 이전을 계획하지 않는 응답기업의 이전 계획이 없는 이유(1+2순위)를 살펴보면, '기존직원 지방 이전 기피'가 4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기존 거래처와의 거리 증가'(44.6%), '물류·교통·입지 조건악화'(32.7%), '인력 확보의 어려움'(28.7%), '이전비용 부담'(15.8%), '정주여건 열악'(1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력 유지 및 기존 사업 네트워크 단절에 대한 우려가 지방 이전의 주요 장벽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업종) 제조업에서 '기존직원 지방이전 기피'가 50.4%로 비제조업(41.1%) 대비 높았음. 비제조업은 '기존 거래처와의 거리 증가'가 52.1%로 제조업(40.3%) 대비 높았고, '정주여건 열악'도 17.8%로 제조업(7.0%)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6] 지방 이전을 계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1+2순위) (단위: %, 복수응답)



<표 2-6> 지방 이전을 계획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1+2순위) (단위: 개사, %, 복수응답)

구분	빈도	기존직원 지방이전 기피	인력 확보의 어려움	투자·금융지원 접근성 악화	기존 거래처와의 거리 증가	물류·교통·입지 조건악화	이전비용 부담	정주여건 열악	기타	
전체	202	47.0	28.7	6.9	44.6	32.7	15.8	10.9	2.0	
업종	제조업	129	50.4	29.5	7.0	40.3	34.9	16.3	7.0	2.3
	비제조업	73	41.1	27.4	6.8	52.1	28.8	15.1	17.8	1.4

\* 사업장(전체 또는 일부) 지방 이전 여부 및 계획에 대해 '이전 계획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에 의한 결과임

\* 기타(4개사): 수도권 내 기반(사옥 등) 보유(2개사), 유클 이유 없음(2개사)

## 제3절 비수도권 의견조사 결과

### 1. 지역 소멸위험 직면

#### 1) 지역 소멸위험에 직면했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sup>3)</sup>

○ 전체 응답기업의 지역 소멸위험에 직면했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대경권(3.03점)을 제외하고 전체 권역이 평균 2점 후반대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보통(③)'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7] 지역 소멸위험에 직면했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점/5점)



<표 2-7> 지역 소멸위험에 직면했는지에 대한 인식 정도 (단위: 개사, %, 점/5점)

구분	사레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5점 평균
							그렇지 않다 (①+②)	보통 (③)	그렇다 (④+⑤)	
전체	569	17.0	28.1	33.9	13.7	7.2	45.2	33.9	20.9	2.66
소계	118	24.6	33.9	26.3	11.9	3.4	58.5	26.3	15.3	2.36
제조업	73	21.9	37.0	24.7	13.7	2.7	58.9	24.7	16.4	2.38
	비제조업	45	28.9	28.9	28.9	8.9	4.4	57.8	28.9	13.3
소계	99	11.1	22.2	33.3	19.2	14.1	33.3	33.3	33.3	3.03
제조업	61	9.8	27.9	34.4	19.7	8.2	37.7	34.4	27.9	2.89
비제조업	38	13.2	13.2	31.6	18.4	23.7	26.3	31.6	42.1	3.26
소계	101	14.9	30.7	37.6	10.9	5.9	45.5	37.6	16.8	2.62
제조업	62	19.4	27.4	33.9	12.9	6.5	46.8	33.9	19.4	2.60
비제조업	39	7.7	35.9	43.6	7.7	5.1	43.6	43.6	12.8	2.67
소계	104	18.3	29.8	37.5	11.5	2.9	48.1	37.5	14.4	2.51
제조업	71	21.1	28.2	36.6	11.3	2.8	49.3	36.6	14.1	2.46
비제조업	33	12.1	33.3	39.4	12.1	3.0	45.5	39.4	15.2	2.61
소계	49	12.2	22.4	42.9	6.1	16.3	34.7	42.9	22.4	2.92

\*계속

3) 지역 소멸위험 직면에 대한 인식 정도의 조사표 척도는 '① 매우 그렇다' ~ '⑤ 전혀 그렇지 않다'로 구성됨. 분석 시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로 역코딩 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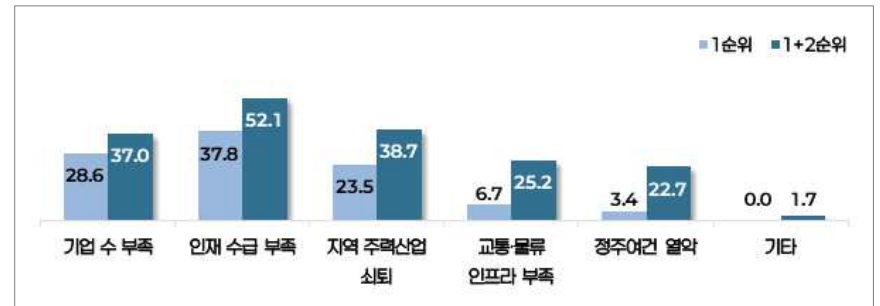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종합			5점 평균	
							그렇지 않다 (①+②)	보통 (③)	그렇다 (④+⑤)		
전국	제조업	29	6.9	31.0	37.9	3.4	20.7	37.9	37.9	24.1	3.00
	비제조업	20	20.0	10.0	50.0	10.0	10.0	30.0	50.0	20.0	2.80
소계		48	20.8	14.6	29.2	25.0	10.4	35.4	29.2	35.4	2.90
북부	제조업	29	20.7	20.7	24.1	17.2	17.2	41.4	24.1	34.5	2.90
	비제조업	19	21.1	5.3	36.8	36.8	0.0	26.3	36.8	36.8	2.89
소계		50	14.0	36.0	34.0	14.0	2.0	50.0	34.0	16.0	2.54
중부	제조업	31	16.1	29.0	38.7	12.9	3.2	45.2	38.7	16.1	2.58
	비제조업	19	10.5	47.4	26.3	15.8	0.0	57.9	26.3	15.8	2.47

## 2) 소멸위험의 원인

- 지역 소멸위험 직면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의 소멸위험의 원인을 살펴보면, '인재 수급 부족'이 5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역 주력산업 쇠퇴'(38.7%), '기업 수 부족'(37.0%), '교통·물류 인프라 부족'(25.2%), '정주여건 열악'(22.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력 확보 문제가 지역 소멸위험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고, 동시에 산업 기반 약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됨
- (권역별)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인재 수급 부족'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경권(54.5%)과 호남권(58.8%)은 '지역 주력산업 쇠퇴'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제주는 '기업 수 부족'(50.0%), '지역 주력산업 쇠퇴'(50.0%)가 동시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8】 소멸위험의 원인(1+2순위)

(단위: %, 복수응답)



【표 2-8】 소멸위험의 원인(1+2순위)

(단위: 개사, %, 복수응답)

구분	빈도	기업 수 부족	인재 수급 부족	지역 주력산업 쇠퇴	교통·물류 인프라 부족	정주여건 열악	기타	
전체	119	37.0	52.1	38.7	25.2	22.7	1.7	
소계	18	50.0	55.6	5.6	27.8	22.2	0.0	
전남권	제조업	12	58.3	41.7	0.0	33.3	25.0	0.0
	비제조업	6	33.3	83.3	16.7	16.7	16.7	0.0
소계	33	27.3	48.5	54.5	36.4	27.3	0.0	
충청권	제조업	17	17.6	52.9	58.8	29.4	29.4	0.0
	비제조업	16	37.5	43.8	50.0	43.8	25.0	0.0
소계	17	35.3	47.1	58.8	17.6	29.4	0.0	
서부권	제조업	12	25.0	50.0	66.7	8.3	33.3	0.0
	비제조업	5	60.0	40.0	40.0	40.0	20.0	0.0

\*계속

구분	빈도	기업 수 부족	인재 수급 부족	지역 주력산업 쇠퇴	인프라 부족	정주여건 열악	기타
전체	119	37.0	52.1	38.7	25.2	22.7	1.7
소계	15	40.0	53.3	33.3	20.0	20.0	13.3
연남권에 업종	제조업	10	30.0	70.0	20.0	10.0	30.0
	비제조업	5	60.0	20.0	60.0	40.0	0.0
연남권 소계	11	36.4	45.5	18.2	18.2	18.2	0.0
연남권 업종	제조업	7	14.3	57.1	14.3	28.6	14.3
	비제조업	4	75.0	25.0	25.0	0.0	25.0
연남권 소계	17	35.3	70.6	35.3	23.5	17.6	0.0
연남권 업종	제조업	10	40.0	80.0	30.0	20.0	10.0
	비제조업	7	28.6	57.1	42.9	28.6	28.6
연남권 소계	8	50.0	37.5	50.0	12.5	12.5	0.0
제주 업종	제조업	5	60.0	60.0	20.0	20.0	20.0
	비제조업	3	33.3	0.0	100.0	0.0	0.0

\* 지역 소멸위험 직면에 대한 인식 정도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기업에 의한 결과임

\* 기타: 매출감소(1개사)

## 2. 정부의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

### 1) 중앙정부 지원정책 체감 수준 인식 정도

○ 전체 응답기업의 중앙정부 지원정책 체감 수준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2.53점으로 전 권역이 '보통(㉓)'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부족하다(㉑+㉒)' 40.4%, '보통(㉓)' 수준이 55.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중앙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확인됨

○ (권역별) 권역별로 살펴보면, 제주(2.80점)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부권(2.68점), 전북(2.63점), 호남권(2.61점), 동남권(2.53점), 대경권(2.24점), 강원(2.24점) 순으로 나타남

- 대경권과 강원은 평균 2.24점으로 전체(2.53점) 대비 낮았고, '부족하다(㉑+㉒)'가 각각 58.6%, 51.0%로 전체(40.4%) 대비 높아 중앙정부 지원정책 체감 수준이 가장 낮은 권역으로 확인됨. 제주는 '충분하다(㉔+㉕)'가 12.0%로 전체(4.2%) 대비 높아 상대적으로 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9】 중앙정부 지원정책 체감 수준 인식 정도

(단위: 점/5점)



【표 2-9】 중앙정부 지원정책 체감 수준 인식 정도

(단위: 개사, %, 점/5점)

구분	사레수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보통이다	다소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종합			5점 평균	
							부족하다 (㉑+㉒)	보통 (㉓)	충분하다 (㉔+㉕)		
전체	569	10.9	29.5	55.4	3.9	0.4	40.4	55.4	4.2	2.53	
소계	118	8.5	26.3	55.1	9.3	0.8	34.7	55.1	10.2	2.68	
연남권에 업종	제조업	73	4.1	35.6	52.1	8.2	0.0	39.7	52.1	8.2	2.64
	비제조업	45	15.6	11.1	60.0	11.1	2.2	26.7	60.0	13.3	2.73
연남권 소계	99	17.2	41.4	41.4	0.0	0.0	58.6	41.4	0.0	2.24	
연남권 업종	제조업	61	14.8	52.5	32.8	0.0	0.0	67.2	32.8	0.0	2.18
	비제조업	38	21.1	23.7	55.3	0.0	0.0	44.7	55.3	0.0	2.34

\*계속

구분	사선수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보통이다	다소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종합			5점 평균	
							부족하다 (①+②)	보통 (③)	충분하다 (④+⑤)		
전체	569	10.9	29.5	55.4	3.9	0.4	40.4	55.4	4.2	2.53	
수도권 기업	소계	101	4.0	30.7	65.3	0.0	0.0	34.7	65.3	0.0	2.61
	제조업	62	1.6	30.6	67.7	0.0	0.0	32.3	67.7	0.0	2.66
비제조업	39	7.7	30.8	61.5	0.0	0.0	38.5	61.5	0.0	2.54	
수도권 기업	소계	104	13.5	25.0	57.7	2.9	1.0	38.5	57.7	3.8	2.53
	제조업	71	9.9	23.9	60.6	4.2	1.4	33.8	60.6	5.6	2.63
비제조업	33	21.2	27.3	51.5	0.0	0.0	48.5	51.5	0.0	2.30	
수도권 기업	소계	49	26.5	24.5	46.9	2.0	0.0	51.0	46.9	2.0	2.24
	제조업	29	24.1	27.6	44.8	3.4	0.0	51.7	44.8	3.4	2.28
비제조업	20	30.0	20.0	50.0	0.0	0.0	50.0	50.0	0.0	2.20	
수도권 기업	소계	48	6.3	27.1	64.6	2.1	0.0	33.3	64.6	2.1	2.63
	제조업	29	6.9	34.5	55.2	3.4	0.0	41.4	55.2	3.4	2.55
비제조업	19	5.3	15.8	78.9	0.0	0.0	21.1	78.9	0.0	2.74	
수도권 기업	소계	50	2.0	28.0	58.0	12.0	0.0	30.0	58.0	12.0	2.80
	제조업	31	0.0	32.3	61.3	6.5	0.0	32.3	61.3	6.5	2.74
비제조업	19	5.3	21.1	52.6	21.1	0.0	26.3	52.6	21.1	2.89	

2) 중앙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

○ 중앙정부 지원정책 체감 수준 인식 정도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가장 큰 이유(1+2순위)를 살펴보면, '인력확보 어려움'이 53.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투자·금융 접근성 어려움'(43.9%),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 열악'(33.0%), '기술 접근성 낮음'(24.8%), '판로 기회 부족'(18.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력 및 금융 분야에서의 정책 지원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인력확보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호남권(74.3%)은 '투자·금융 접근성 어려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호남권은 '기술 접근성 낮음'(42.9%)도 전체(24.8%) 대비 높아 금융·기술 분야 정책 지원에 대한 요구가 큰 것으로 확인됨. 대경권은 '인력확보 어려움'이 62.1%로 전체(53.5%) 대비 높았고, '판로 기회 부족'(27.6%)도 전체(18.3%)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동남권은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 열악'이 40.0%로 전체(33.0%)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됨

□표 1-10 중앙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1+2순위)

(단위: %, 복수응답)



□표 2-10 중앙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1+2순위)

(단위: 개사, %, 복수응답)

구분	빈도	인력확보 어려움	투자·금융 접근성 어려움	기술 접근성 낮음	판로 기회 부족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 열악	기타	
전체	230	53.5	43.9	24.8	18.3	33.0	1.3	
소계	41	51.2	41.5	26.8	12.2	24.4	0.0	
수도권 기업	제조업	29	48.3	34.5	31.0	13.8	31.0	0.0
	비제조업	12	58.3	58.3	16.7	8.3	8.3	0.0
대경권 기업	소계	58	62.1	43.1	27.6	27.6	34.5	3.4
	제조업	41	63.4	36.6	29.3	29.3	34.1	4.9
비제조업	17	58.8	58.8	23.5	23.5	35.3	0.0	

\*계속

구분	빈도	인력확보 어려움	투자·금융 접근성 어려움	기술 접근성 낮음	관료 기회 부족	고통·물류·입지 등 인프라 열악	기타
전체	230	53.5	43.9	24.8	18.3	33.0	1.3
민간기업	소계	35	40.0	74.3	42.9	20.0	0.0
	제조업	20	55.0	65.0	25.0	25.0	0.0
	비제조업	15	20.0	86.7	66.7	13.3	0.0
민간기업	소계	40	65.0	42.5	30.0	17.5	40.0
	제조업	24	66.7	41.7	33.3	8.3	45.8
	비제조업	16	62.5	43.8	25.0	31.3	31.3
민간기업	소계	25	44.0	32.0	0.0	12.0	32.0
	제조업	15	53.3	33.3	0.0	13.3	26.7
	비제조업	10	30.0	30.0	0.0	10.0	40.0
공기업	소계	16	50.0	43.8	12.5	18.8	56.3
	제조업	12	50.0	50.0	0.0	16.7	41.7
	비제조업	4	50.0	25.0	0.0	25.0	100.0
공기업	소계	15	46.7	6.7	6.7	6.7	40.0
	제조업	10	30.0	0.0	10.0	10.0	60.0
	비제조업	5	80.0	20.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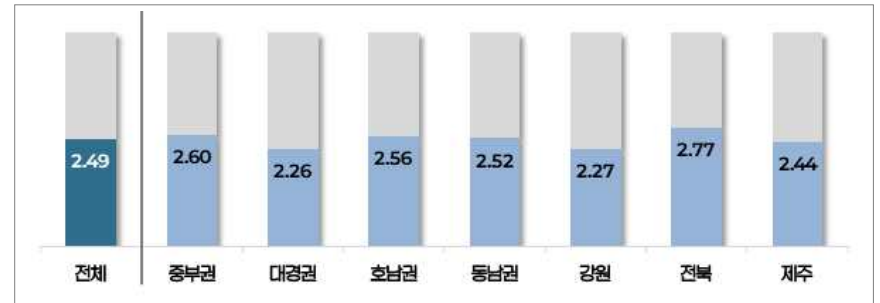
\* 중앙정부 지원정책 체감 수준 인식 정도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에 의한 결과임  
 \* 기타(2개사): 정보 부족(1개사), 지원정책 요구 서류 과도(1개사), 무응답(1개사)

### 3) 지방정부 지원정책 체감 수준 인식 정도

- 전체 응답기업의 지방정부 지원정책 체감 수준 인식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평균 2.49점으로 전 권역이 '보통(㉓)' 수준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부족하다(㉑+㉒)' 4.3.6%, '보통(㉓)' 수준이 53.1%로 나타나 지방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체감 수준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인지되는 것으로 확인됨
  - 중앙정부 체감 수준(2.53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중앙·지방정부 모두 지원정책 체감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권역별로 살펴보면, 전북(2.77점)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중부권(2.60점), 호남권(2.56점), 동남권(2.52점), 제주(2.44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대경권과 강원은 '부족하다'가 각각 56.6%, 57.1%로 전체(43.6%) 대비 높아 지방정부 지원정책 체감 수준이 가장 부족하게 인식되는 권역으로 확인됨. 전북은 '충분하다(㉔+㉕)'가 10.4%로 전체 (3.3%) 대비 높아 상대적으로 체감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1】 지방정부 지원정책 체감 수준 인식 정도

(단위: 점/5점)



<표 2-11> 지방정부 지원정책 체감 수준 인식 정도

(단위: 개사, %, 점/5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보통이다	다소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종합			5점 평균	
							부족하다 (㉑+㉒)	보통 (㉓)	충분하다 (㉔+㉕)		
전체	569	11.1	32.5	53.1	2.8	0.5	43.6	53.1	3.3	2.49	
민간기업	소계	118	9.3	27.1	58.5	4.2	0.8	36.4	58.5	5.1	2.60
	제조업	73	5.5	32.9	57.5	4.1	0.0	38.4	57.5	4.1	2.60
	비제조업	45	15.6	17.8	60.0	4.4	2.2	33.3	60.0	6.7	2.60
공기업	소계	99	18.2	38.4	42.4	1.0	0.0	56.6	42.4	1.0	2.26
	제조업	61	14.8	47.5	37.7	0.0	0.0	62.3	37.7	0.0	2.23
	비제조업	38	23.7	23.7	50.0	2.6	0.0	47.4	50.0	2.6	2.32

\*계속

구분	사례수	매우 부족하다	다소 부족하다	보통이다	다소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종합			5점 평균	
							부족하다 (①+②)	보통 (③)	충분하다 (④+⑤)		
전체	569	11.1	32.5	53.1	2.8	0.5	43.6	53.1	3.3	2.49	
전국에	소계	101	5.9	31.7	62.4	0.0	0.0	37.6	62.4	0.0	2.56
	제조업	62	4.8	30.6	64.5	0.0	0.0	35.5	64.5	0.0	2.60
비제조업	39	7.7	33.3	59.0	0.0	0.0	41.0	59.0	0.0	2.51	
전국에	소계	104	11.5	29.8	54.8	2.9	1.0	41.3	54.8	3.8	2.52
	제조업	71	8.5	29.6	56.3	4.2	1.4	38.0	56.3	5.6	2.61
비제조업	33	18.2	30.3	51.5	0.0	0.0	48.5	51.5	0.0	2.33	
중앙	소계	49	20.4	36.7	38.8	4.1	0.0	57.1	38.8	4.1	2.27
	제조업	29	20.7	31.0	44.8	3.4	0.0	51.7	44.8	3.4	2.31
비제조업	20	20.0	45.0	30.0	5.0	0.0	65.0	30.0	5.0	2.20	
전국	소계	48	4.2	27.1	58.3	8.3	2.1	31.3	58.3	10.4	2.77
	제조업	29	6.9	17.2	62.1	10.3	3.4	24.1	62.1	13.8	2.86
비제조업	19	0.0	42.1	52.6	5.3	0.0	42.1	52.6	5.3	2.63	
수도권	소계	50	8.0	42.0	48.0	2.0	0.0	50.0	48.0	2.0	2.44
	제조업	31	6.5	45.2	48.4	0.0	0.0	51.6	48.4	0.0	2.42
비제조업	19	10.5	36.8	47.4	5.3	0.0	47.4	47.4	5.3	2.47	

#### 4) 지방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

- 지방정부 지원정책 체감 수준 인식 정도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의 가장 큰 이유(1+2순위)를 살펴보면, '인력확보 어려움'이 61.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 열악' (41.5%), '투자·금융 접근성 어려움'(36.7%), '판로 기회 부족'(23.8%), '기술 접근성 낮음'(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앙정부 부족 이유와 비교하면, '인력확보 어려움'(중앙 53.5% → 지방 61.7%)과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 열악'(중앙 33.0% → 지방 41.5%)이 높아져 지방정부 차원의 인력 및 인프라 분야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인력확보 어려움'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제주(72.0%)는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 열악'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호남권은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 열악'이 60.5%로 전체(41.5%) 대비 높아 인프라 분야 지원 요구가 큰 것으로 확인됨. 대경권은 '기술 접근성 낮음'이 28.6%로 전체(13.7%) 대비 높았고, '판로 기회 부족'(30.4%)도 전체(23.8%)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1-12】 지방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1+2순위) (단위: %, 복수응답)



【표 2-12】 지방정부 지원정책이 부족하다고 느낀 가장 큰 이유(1+2순위) (단위: 개사, %, 복수응답)

구분	빈도	인력확보 어려움	투자·금융 접근성 어려움	기술 접근성 낮음	판로 기회 부족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 열악	기타	
전체	248	61.7	36.7	13.7	23.8	41.5	2.8	
소계	43	60.5	37.2	9.3	20.9	30.2	2.3	
전국에	제조업	28	75.0	21.4	7.1	17.9	39.3	0.0
	비제조업	15	33.3	66.7	13.3	26.7	13.3	6.7
소계	56	64.3	41.1	28.6	30.4	30.4	3.6	
중앙	제조업	38	60.5	36.8	26.3	34.2	34.2	5.3
	비제조업	18	72.2	50.0	33.3	22.2	22.2	0.0

\*계속

구분	빈도	인력확보 어려움	투자·금융 접근성 어려움	기술 접근성 낮음	판로 기회 부족	고통·물류·입지 등 인프라 열악	기타	
전체	248	61.7	36.7	13.7	23.8	41.5	2.8	
전국	소계	38	68.4	42.1	7.9	21.1	60.5	0.0
	제조업	22	68.2	45.5	4.5	22.7	59.1	0.0
비제조업	소계	16	68.8	37.5	12.5	18.8	62.5	0.0
	제조업	27	74.1	37.0	14.8	14.8	40.7	7.4
비제조업	소계	16	62.5	43.8	18.8	31.3	25.0	6.3
	제조업	15	53.3	20.0	0.0	26.7	40.0	0.0
비제조업	소계	13	30.8	46.2	0.0	7.7	30.8	0.0
	제조업	7	28.6	28.6	28.6	57.1	28.6	14.3
비제조업	소계	8	62.5	25.0	25.0	12.5	62.5	0.0
	제조업	25	64.0	24.0	0.0	24.0	72.0	0.0
비제조업	소계	16	50.0	31.3	0.0	25.0	68.8	0.0
	제조업	9	88.9	11.1	0.0	22.2	77.8	0.0

\* 지방정부 지원정책 체감 수준 인식 정도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에 의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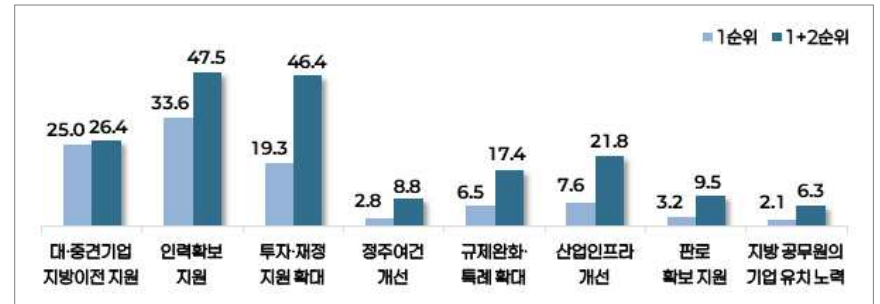
\* 기타(4개사): 정보 부족(2개사), 정치인의 의욕부족(1개사), 지원정책 요구 서류 과도(1개사)

### 3.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

- 전체 응답기업의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1+2순위)을 살펴보면, '인력확보 지원'이 47.5%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투자·재정지원 확대'(46.4%), '대·중견기업 지방이전 지원'(26.4%), '산업인프라 개선'(21.8%), '규제완화·특례 확대'(17.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재정 분야 지원이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의 핵심 요인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확인됨
- (권역별) 권역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권역에서 '인력확보 지원'이 높게 나타난 가운데, 대경권(52.5%)과 동남권(49.0%)은 '투자·재정지원 확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제주는 '인력확보 지원'이 68.0%로 전체(47.5%) 대비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대경권은 '대·중견기업 지방이전 지원'이 43.4%로 전체(26.4%) 대비 높았고, 호남권은 '산업인프라 개선'이 36.6%로 전체(21.8%) 대비 높은 것으로 나타남. 전북은 '규제완화·특례 확대'가 29.2%로 전체(17.4%) 대비 높았고, 강원은 '지방 공무원의 기업 유치 노력'이 16.3%로 전체(6.3%) 대비 높아 다른 권역과 차별화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됨

【그림 1-13】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1+2순위)

(단위: %, 복수응답)



<표 2-13>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1+2순위)

(단위: 개사, %, 복수응답)

구분	빈도	대·중견 기업 지방이전 지원	인력확보 지원	투자· 재정지원 확대	중주여건 개선	규제완화· 특례 확대	산업 인프라 개선	판로 확보 지원	지방 공무원의 기업 유치 노력	
전체	569	26.4	47.5	46.4	8.8	17.4	21.8	9.5	6.3	
소계	118	22.0	44.9	47.5	9.3	15.3	17.8	6.8	6.8	
전국	제조업	73	21.9	45.2	42.5	13.7	15.1	17.8	6.8	5.5
	비제조업	45	22.2	44.4	55.6	2.2	15.6	17.8	6.7	8.9
소계	99	43.4	38.4	52.5	11.1	19.2	21.2	8.1	5.1	
대경권	제조업	61	41.0	44.3	52.5	9.8	19.7	21.3	6.6	3.3
	비제조업	38	47.4	28.9	52.6	13.2	18.4	21.1	10.5	7.9

\*계속

구분	빈도	대·중견 기업 지방이전 지원	인력확보 지원	투자· 재정지원 확대	정주여건 개선	규제완화· 특례 확대	산업 인프라 개선	판로 확보 지원	지방 공무원의 기업 유치 노력	
전체	569	26.4	47.5	46.4	8.8	17.4	21.8	9.5	6.3	
소계	101	15.8	52.5	51.5	9.9	12.9	36.6	11.9	4.0	
면역 업종	제조업	62	16.1	64.5	51.6	6.5	11.3	33.9	9.7	0.0
	비제조업	39	15.4	33.3	51.3	15.4	15.4	41.0	15.4	10.3
소계	104	32.7	53.8	49.0	4.8	23.1	22.1	3.8	5.8	
면역 업종	제조업	71	29.6	59.2	45.1	2.8	23.9	22.5	4.2	7.0
	비제조업	33	39.4	42.4	57.6	9.1	21.2	21.2	3.0	3.0
소계	49	26.5	32.7	18.4	4.1	2.0	16.3	10.2	16.3	
면역 업종	제조업	29	20.7	37.9	17.2	3.4	0.0	17.2	13.8	20.7
	비제조업	20	35.0	25.0	20.0	5.0	15.0	5.0	5.0	10.0
소계	48	25.0	41.7	41.7	16.7	29.2	12.5	14.6	6.3	
면역 업종	제조업	29	24.1	48.3	37.9	13.8	31.0	6.9	20.7	6.9
	비제조업	19	26.3	31.6	47.4	21.1	26.3	21.1	5.3	5.3
소계	50	12.0	68.0	48.0	6.0	20.0	16.0	20.0	4.0	
면역 업종	제조업	31	9.7	64.5	48.4	9.7	19.4	19.4	16.1	3.2
	비제조업	19	15.8	73.7	47.4	0.0	21.1	10.5	26.3	5.3

\* 지방정부 지원정책 체감 수준 인식 정도에 대해 '부족하다'고 응답한 기업에 의한 결과임



###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조사 (비수도권)

본 조사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체감도를 파악하고, 개선필요사항을 파악하여 정책 제언시 활용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실히 응답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응답 내용은 통계법 제 33조에 따라 비밀로 보호되고 조사목적 이외에 활용되지 않습니다.  
 ※ (주관기관) 중소기업중앙회, (수행기관) 코리아데이터네트워크

[응답자] 아래의 현황 자료는 조사 분석에 꼭 필요하므로, **빠짐없이 작성**해주시시오.

업체명	성명/연락처	/	-	-
업종	①제조업 ②비제조업	종업원수	(명)	매출액 '25년 (백만원)

- Q1. 귀사가 소재한 지역이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그렇지 않다 ⑤ 전혀 그렇지 않다
- Q1-1. (Q1에서 ①,② 선택 시) 소멸위험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기업 수 부족(구직난) ② 인재 수급 부족(구인난) ③ 지역 주력산업 쇠퇴  
 ④ 교통·물류 인프라 부족 ⑤ 정주여건 열악(주거, 의료, 교육 등) ⑥ 기타( )

- Q2. 귀사는 수도권과 지방 간 중소기업 경영환경 격차가 어느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매우 크다 ② 다소 크다 ③ 보통이다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전혀 크지 않다
- Q2-1. (Q2에서 ①,② 선택 시) 격차를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인력 확보(인재 유입) ② 투자·금융 접근성 ③ 기술 접근성  
 ④ 판로(상품을 판매하는 길, 통로) 기회 ⑤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 ⑥ 기타( )

- Q3. 현재 귀사가 체감하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 )
- |      |                                                |
|------|------------------------------------------------|
| 중앙정부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다소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
| 지방정부 | ① 매우 부족하다 ② 다소 부족하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충분하다 ⑤ 매우 충분하다 |

\* 중앙정부 지원정책은 중기부·산업부 등 정부부처 사업, 지방정부 지원정책은 지방정부 사업 의미

- Q3-1. (Q3에서 ①,② 선택 시) 부족하다고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중앙정부] (1순위 : ) (2순위 : ) / [지방정부] (1순위 : ) (2순위 : )  
 ① 인력 확보(인재 유입) 어려움 ② 투자·금융 접근성 어려움 ③ 기술 접근성 낮음  
 ④ 판로 기회 부족 ⑤ 교통·물류·입지 등 인프라 열악 ⑥ 기타( )

- Q4. 지방 중소기업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1순위 : ) (2순위 : )  
 ① 대중견기업(앵커기업) 지방이전 지원 ② 인력확보 지원 (고용지원금 등) ③ 투자재정지원 확대  
 ④ 정주여건 개선 ⑤ 규제완화특례 확대 ⑥ 산업인프라 개선  
 ⑦ 판로 확보 지원 ⑧ 지방 공무원의 기업 유치 노력

Q5.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과 관련해 건의하고 싶은 의견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방 중소기업 지원정책 의견조사

2026년 02월 인쇄

2026년 02월 발행

발 행: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 <https://www.kbiz.or.kr>

주 소: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여의도동)

전 화: 02-2124-3112

이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12】로 문의바랍니다.